

제조IT 특성화 사업

강재관*(경남대학교)

주제어 : 제조IT, 특성화사업, 지역특화사업, 경남대학교

경남지역은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기계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집중 육성되어 왔다. 1970년대 울산 거제 지방을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1974년 창원기계공단이 설립되었고 1990년대에는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유치되는 등 우리나라 기계산업 중 경남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 경남에서는 기계산업이 전체 지역 제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지역의 기계 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약한 단선적인 산업구조와 가공조립 중심의 기술력 때문에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저 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지역의 기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새로운 기계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21세기 정보화시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기계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전통 기계산업과 IT(정보통신기술)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로 귀결된다. 기계산업이 그 독자적인 영역만을 고집하는 한 세계화정보화로 요약되는 21세기 패러다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즉 경남지역의 기계산업 중심의 제조업은 전통산업과 IT의 조화라는 시대적 화두를 해결하지 않은 한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경남대학교는 이러한 패러다임 쉬프트 및 학문의 퓨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자각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통제조기술과 첨단IT기술을 접목하는 기술 분야를 제조IT라 명명하고 이를 대학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게 되었다.

제조IT는 전통 제조기술과 첨단 IT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기술 분야로 제조자동화 기술, 제조정보화 기술, IT 제조기술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 제조 자동화 기술 분야: 제조업의 무인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전기전자·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제조공정의 자동화 기술 분야.
- 제조 정보화 기술 분야: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생산 및 경영에 이용하는 분야
- IT 제조 기술 분야: 반도체 부품(메모리 등), 통신기기(휴대폰, PDA등), 컴퓨터 장치(LCD 등) 등과 같이 IT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기술 분야.

경남대학교의 제조IT 특성화사업은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육성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총 16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므로 특성화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 육성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경남대학교 “제조IT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조업과 IT의 융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